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9호 [주제 제25848호] 주제 106(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떨치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 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자강도, 남포시, 라선시 군민련환대회 진행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집성에 따라 단행된 새형의 대북간판도로젝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오직 사기의 힘을 믿고 광명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나아가는 온 나라 원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베풀어주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강철의 당력과 배짱, 불변 불후의 헌신적인 명도로 혁명투쟁의 강행군길을 역적같이 헤치며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만만대로를 환히 열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자강도, 남포시, 라선시 군민련환대회가 3일과 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병전의 기치로 주체조선의 역적 위상을 단방에 파시한 오늘날의 민족사적 대승리를 고조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집정부를 경사관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의 배일을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지를 안고 모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로 치달리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의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결세의 애국자 김정은장군 만세!》 등의 구호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단방에 파시한 대북간판도로젝트 《화성-15》형시험발사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를 비롯한 구호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인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부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장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위원장 김재봉동지가 낭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호동지, 조선인민군 장령대령부동지,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심명철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새형의 대북간판도



제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은 지금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격경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11월대사변》으로 미국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제재압박들은 총지탄산나고 우리는 병전의 력을 보면서 자립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후대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뼈아픈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겪지 않고 영원히 사회주의민복을 누릴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마음대로 침해할수 없게 되었으며 실체적인 힘으로 나라의 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담보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수 없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전로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드림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관철같이 뿔쳐나서야 하겠습시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전제 인민들이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걸사용위하며 일심단결의 심세를 천군만마로 억척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방과학부문 전무원들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양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려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계획을 무조건 단행하며 인민소비품과 알곡, 누에고치, 축산물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구상의 요구에 맞게 교조전과 환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힘있게 벌이고 주요대상 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관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포시에서

남포시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남포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모동지가 낭독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옥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박동명동지, 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철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행성을 미증유의 충격으로 뒤흔든 민족사적대승리

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히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만한 눈의 거대한 사변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강행군길을 앞장에서 최후로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력한 령도와 헌신의 로고로 인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인의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마다에 쏘아 박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렬의 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적들이 발악적으로 나올수록 승리의 배심은더욱 강직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중요전투장소에서 비약적으로 뛰놀든 민족사적대승리

대하여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라선시위원회의 위원장 림경만동지가 낭독한데 이어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리광철동지, 조선인민군 군관 리기영동지, 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용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주제106(2017)년 11월 29일은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하고 미제의 핵공포와 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총체적 승전의 날로 조국형사에 만연히 आरो세져있것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세상을 들었다 놓는 폭대시변들을 편이여 이복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단방에 떨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전무후무한 강국건설업적을 영원히 빛냈기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상의 선출명망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당의 위업을 총체다해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올해의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국방과학부문 전무원들이 발휘한 투쟁기치가 시인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꼭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단약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이 땅에 백인병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의 혁명적투쟁은 가장 무자비하고 치열한 선택타격으로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구렁텅이에 처하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태두의 청신한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업무를 띠고나갈 명장들로 역시게 지라난 청년대군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동원전에서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군민련환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위에 세계가 우리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막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